THE HUNDREDTHIRD KC

NEWS LETTER

may

5

1) KC글라스, 2018년도 야유회

2) KC환경서비스, 독일 IFAT 환경전시회 참석

3) KC코트렐, 남아공 대사 방문

4) KC그린소재, 제품개발 협약 체결

1. KC글라스, 2018년도 야유회

지난 05월, KC글라스는 3회에 걸쳐 단양으로 야유회를 다녀왔다. 오랜만에 천안 근교를 벗어나 단양 팔경의 아름다움을 가슴 속에 담아온 소중한 시간이었다. 비록 하루 동안의 짧은 일정과 2, 3차수 일정 중에 비가 내려 아쉬움이 있었지만 시종일관 밝은 미소와 유쾌한 웃음이 끊이지 않았던 즐거운 시간이었다. 옥순봉에서 바라본 청풍호의 절경과, 단양 잔도 길에서 둘러본 남한강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잠시나마 바쁜 회사생활로 지친 심신을 치유하고, 동료들과의 폭 넓은 대화와 어우러짐을 통해 한층 더 서로를 이해하고 다가 설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짧은 일정상 아쉬움을 뒤로한 채 다시금 바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자연의 아름다움과 깊은 감동을 느끼게 해준 사인암, 도담삼봉의 풍경과, 한마음으로 단합하고 땀 흘리며 진행된 옥순봉 등산과 단양 잔도길 트랙킹의 기억은 우리들 가슴속에 설렘으로 남아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다. KC글라스에서 시작된 소중한 인연과 추억이 영원히 지속되길 염원해 본다. (끝)

2. KC환경서비스, 독일 IFAT 환경전시회 참석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KC환경서비스는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IFAT 환경전시회에 참석하였다. IFAT은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국제 환경기술, 설비 전시회로, 이번 전시회 방문은 독일 및 유럽의 뛰어난 환경설비와 기술을 둘러보고,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여 향후 KC가 진출할 환경산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루어졌다.

KC환경서비스 이석구 전무를 중심으로 각 사업부의 임원, 운영 · 공무 · 안전환경 팀장이 참여했으며, KC그린홀딩스 전략경영팀 조용이 선임과 엄기영 사원이 동행하였다.

이번 IFAT 참석에서는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을 살펴보고, 업체와 비즈니스 미팅을 가지는 등 KC Network에서 환경산업에 대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보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KC환경서비스와 거래하는 독일 현지업체와 연결하여 출장일정을 함께하면서, IFAT 업체 미팅, 독일 프랑크푸르트와 코블렌츠에 있는 소각업체, 하수처리장을 현지 방문하여 이전보다 더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번 방문으로 KC환경서비스 임직원의 환경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시야를 넓힐 수 있었고, 제휴, 거래업체와의 업무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끝)

3. KC코트렐, 남아공 대사 내방

지난 5월 16일 주한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사관에서 KC코트렐 본사를 방문하였다.

대사관 측에서는 노주코 글로리아 밤(Nozuko Gloria Bam) 대사, 해롤드 마나멜라 (Harold Manamela) 경제참사관 그리고 진광수 상무관이 참석하였고, KC코트렐 측에서는 서동영 사장, 이기환 전무, 이태준 상무 그리고 박복응 상무가 참석한 가운데 면담을 진행하였다.

이날 면담에서는 KC코트렐의 전반적인 회사 정보 및 주요 사업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이태준 상무의 Ngodwana 25MW Biomass Power Plant 사업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이 이루어졌다. 대사님과 경제참사관은 이번 사업이 남아공 현지 지역 경제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였고, 대사님은 본 사업에 KC코트렐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대사관측에서 가능한 지원을 약속했다. (끝)

4. KC그린소재, 제품개발 협약 체결

삼척에코건자재(KC그린소재 위탁운영 대표 박기서)가 아세아시멘트·한국남부발전·위드엠텍과 한국남부발전 삼척발전본부의 석탄재를 재활용하여 생산중인 인공골재를 활용한 제품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한국남부발전 삼척발전본부에서 배출되는 석탄회를 재활용하여 건자재용 모래와 혼화재를 2018년부터 본격 생산하기 시작한 삼척에코건자재는 아세아시멘트, 한국남부발전, 위드엠텍과 에코건자재의 인공골재를 활용한 제품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삼척에코건자재에서 생산하는 인공골재는 폐기물인 석탄회의 CaO 성분을 이용한 수화반응을 통해 물리·화학적 결합으로 생산되는 친환경 골재로서 폐기물의 재활용과 자원재순환의 측면에서 획기적인 발전이 기대된다. 제품적용에 대한 연구 및 설비개선을 통해 2019년부터 아세아시멘트의 모르타르 제품과 시멘트 제품에 본격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위, 5월 31일 KC코트렐 이달우 명예회장 KC그린소재 방문)

한편, 지난 5월 31일 KC코트렐 이달우 명예회장이 KC그린소재에 방문하였고, 박기서 대표이사와 함께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KC그린소재의 임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끝)

THE HUNDREDTHIRD

KC NEWS LETTER

발행월 2018년 6월 | 발행주관 KC그린홀딩스 지속가능경영팀 (narae@kcgreenholdgins.com)

KC GreenHoldings